

2018. SUMMER. 여름호(제4호)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인사말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 격려사

잠들어 계신 선배 전우들을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 인터뷰

승고한 유해발굴사업을 알리는 서경덕 교수

#### 행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호국영웅  
사업설명회, 중국군 유해송환, 현충일 행사

#### 홍보성과

유해발굴사업 in 미디어

#### 2018년 계획

2018년 전반기 발굴 성과 및  
후반기 발굴 계획

##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누군가의 꽃으로 태어나 전사(戰士)로 죽어간 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이렇고 형제였던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세기가 훌쩍 넘는 시간동안 이름 모를 산야에 쓸쓸히 잠들어 있는 전사자들을 기억하고 애타게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장에 전우를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과 미안함으로, 빛바랜 사진으로 밖에 아버지를 만나 볼 수 없는 그리움과 애틀함으로 70여 년의 세월을 보냈을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창설 이후 지난 10여 년의 시간 동안 6·25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되찾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쉬 없이 달려왔습니다. 올해도 전남 광양을 시작으로 전국의 82개 지역에서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들이 유해발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 정부부처 관계 기관 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지역까지 참전용사 증언청취회를 확대하여 생생한 전투경험담과 유해소재에 대한 신뢰성 높은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1만여 명의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였

고, 이중 128분의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해소재 제보에 참여해 주신 참전용사와 지역주민, 직접 발굴에 참여한 야전부대 장병,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보건소 등 행정기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유해발굴사업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많은 국민과 언론의 관심 속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DMZ 지역과 북한 지역에는 6·25전쟁 이후 수습되지 못한 약 4만여 명의 국군 전사자가 잠들어 계시며, 이들을 찾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DMZ 지역과 북한 지역에 대한 유해분석지도를 제작하고, 전담 TF 구성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공동 유해발굴이 성사된다면 군사적 긴장감 완화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그동안 우리의 손길이 미칠 수 없어 안타까움이 더 컸을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감동이 되어 줄 수 있길 기대합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마지막 한 분을 모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6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대령 **이학기**

## 잠들어 계신 선배 전우들을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68년 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조국을 구하고 산화하신 12만 3천여 위 호국영웅들이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쓸쓸히 잠들어 계십니다. 이처럼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외롭게 홀로 누워계신 호국영웅들께 먼저 머리 숙여 애도를 올립니다.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막중한 책무이지만, 지난 2007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창설되기 이전까지 사실상 우리의 관심과 노력은 미미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모셔오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학기 유해발굴감식단장과 장병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백마부대는 7,651위의 6·25전사자 선배 전우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특히, 국군의 청사에 길이 남을 백마고지 전투에서 3,500여 명 이상의 선배 전우들이 전사한 끝에 백마고지를 탈환, ‘수사불패 상승백마’의 신화를 창조하였습니다. 당시 28만여 발의 포탄이 작렬하는 등 치열했던 전투현장에

서 전사하고도 아직까지 찾지 못한 선배 전우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롭게 홀로 누워계신 선배 전우님들을 생각하면 너무도 죄송스러운 마음에 가슴이 메어옵니다.

우리 백마부대는 유해발굴감식단의 숭고한 호국보훈사업을 온전히 공감하고 지지하며, 조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장렬히 산화하신 호국영웅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단 한구의 유해라도 더 발굴하기 위해’ 유해발굴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단장부터 이등병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잠들어 계신 선배 전우들을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소식지 4호가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헌신이 국가로부터 보답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되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활약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8년 6월

육군 제9보병사단장 소장 **안병석**

# 사진으로 보는 2018 전반기 유해발굴사업



### 1.2. 단 창설 11주년 기념식

단 창설 11주년 기념식에서 성과 있는 유해발굴사업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 1.26. 제8차 6·25전사자 유해발굴 관계기관 협의회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제8차 6·25전사자 유해발굴 관계기관 협의회를 국방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2.27. 2018년 유해발굴 추진 관련 협조회의

조속한 유해발굴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별 발굴 부대와 함께 협조사항을 토의하였습니다.



### 3.5.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일행 단 방문

유해발굴사업 지원을 위해 국방위원회 일행이 단에 방문하여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업무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 3.20. 멕시코 국방성 정보국장 일행 단 방문

멕시코 정보국장 일행이 단을 방문해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유해발굴 감식 기술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3.22. 창원지역 유해발굴사업 설명회

창원지역에 거주 중인 6·25참전용사·유가족, 보건소 및 행정기관 관계자 등 210여 명을 초청해 사업설명회 및 참전용사 증언 청취회를 진행했습니다.



### 3.28. 2018년 중국군 유해 송환

제5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에서는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2017년 발굴된 중국군 유해 20구를 송환했습니다.



### 4.10. 호주 국방무관일행 단 방문

호주군 6·25전사자 유해발굴 상호 협력을 위해 호주 국방무관 일행이 단에 방문했습니다.



### 4.24. 미군 6·25전사자 유가족 방문

이번 유가족 방문에는, 지난 16년도 조국의 품으로 돌아간 미군의 조카가 참석하여 전사자의 생전 사진을 국유단에 기증했습니다.



### 5.4. 제3기 대학생 서포터즈 유해발굴 현장 견학

제3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학생 서포터즈가 유해발굴 현장에 방문하여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호국영령들께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5.17. 뉴질랜드 유해발굴단 단 방문

뉴질랜드 유해발굴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 유해발굴사업 노하우를 소개받고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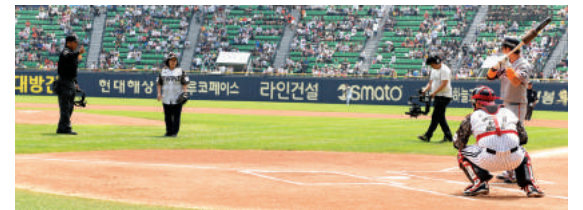
### 5.28. 미 서부지역 6·25참전용사 증언청취회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미 서부지역(SFO, LA) 6·25참전용사공사회에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6·25전사자 유해소재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 6.6. 현충일 추모행사

현충일 추모행사 시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6·25전사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시료채취를 진행하였습니다.



### 6.6. 참전용사 유가족 시구 행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사자 유가족이 시구 행사에 참여해 유해발굴사업을 홍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 6.19.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6·25전사자 故 윤경혁 일병의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6.21. 국회 제3차 강군 육성을 위한 세미나

6·25를 맞이하여 이종명 국회의원 주최로 유해 조기 발굴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 국유단 홍보대사 서경덕 교수를 만나다

서경덕 교수는 대한민국 홍보 전문가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해외에 알리는데 앞장서는 ‘한국 알리미’입니다. 지난 2016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유해발굴사업을 알리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서경덕 교수를 유해발굴 현장에서 만나 보았습니다.

## 1. 요즘도 많이 바쁘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네, 요즘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맞아 전반기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월드컵 때마다 전반기(육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FIFA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용된 전반기 디자인에 대한 항의 메일을 보내 수정을 이끌어내는 등 국제기구나 기업의 전반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SNS를 통해 네티즌과 함께 항의하고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 2. 한국 홍보 전문가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세계 50여 개의 나라와 300여 도시를 다니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독도 광고를 싣기도 하였고 MBC 무한도전에 출연하여 멤버들과 비빔밥 광고를 만들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까지 상영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하하 씨와 하시마섬을 방문, 강제 징용의 슬픔을 시청자

들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윤봉길 기념관, 하얼빈 안중근 기념관 등 한국 역사 유적지에 한국어 안내서 서비스를 유치해 왔습니다.

## 3. 홍천 유해발굴 현장에는 어떻게 오셨나요?

오늘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특별한 날을 맞이하여 호국보훈의 의미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6·25전사자의 유해는 차가운 땅 속에서 우리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조차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이 안타까워 국유단과 함께 ‘타임머신 1950’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방부 서포터즈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공개 모집한 일반 국민들까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오전에는 유해발굴 현장 체험을 하고 오후에는 국유단으로 이동해 유해발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행사 당일 우천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무척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웃음)



## 4. 지금까지 국유단 홍보대사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국유단과는 2016년에 처음 인연을 맺어 어느덧 3년의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해발굴사업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하고 가까이에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헤리, 친구, 박하선, 성유리 씨의 내레이션 재능기부를 통해서 유해발굴사업을 알리는 영상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박하선 씨와 함께 사업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작년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 ‘67년 만의 귀향’ 특별 전시회에 힘을 보렸으며, 작년과 올해 잠실과 마산 야구장에서 시타 및 시구 행사를 통해 유해발굴사업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 5.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지금은 대학생들의 방학기간이라 잠시나마 여유를 가질 수 있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컵 기간 전반기 퇴치를 위해서 네티즌들과 함께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대한민국 역사, 실검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에 맞춰 그날의 정확한 한국사 지식을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파일로 제작해 SNS상에 홍보하는 ‘대한민국 역사 교육 캠페인’입니다.

또한 국유단의 사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한 분을 모시는 그날까지’ 작은 힘이지만 국유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함께하는 힘으로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유해발굴사업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호국보훈 사업을 알리기 위해 많은 분들이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3기를 맞은 유해발굴감식단 대학생 서포터즈는 전국 방방곡곡 어르신들을 찾아가 유해발굴사업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박하선·성유리 씨와 함께 홍보물 제작을 진행하였으며, 2017년 MOU 체결로 연을 맺은 종합 안심 솔루션 기업 에스원과 함께 홍보 인프라를 늘리고 있습니다.

## 제3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학생 서포터즈



1 제3기 서포터즈 발대식 2 유해발굴 현장 견학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16년부터 매년 대학생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국민 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국방부 유해발굴사업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발된 30명의 3기 서포터즈들은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8개월 동안 이어질 대장정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서포터즈 활동은 전국 노

인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유해발굴사업과 시료채취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실제 시료채취 성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3기 서포터즈들은 '색다른 아이디어로 유해발굴사업을 알리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각양각색의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박하선·성유리와 함께한 홍보물 제작



1 박하선 포스터 촬영 현장



2 성유리 내레이션 녹음 현장

승고한 호국보훈 사업의 뜻을 함께하기 위해 올해에는 유명 연예인분들이 사업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국방부 유해발굴사업이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각종 홍보물 제작에 함께 했습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에서 멋진 여군의 면모를 보여준 배우 박하선 씨는 포스터·리플릿 지면 촬영에 참여하여 유해발굴사업의 추진절차와 시료채취 참여 독려에 큰 기여

를 했습니다. 과거 가수 핑클로 데뷔하여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 성유리 씨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프로젝트 영상 내레이션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유해발굴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알렸습니다.

두 분의 뜻깊은 참여는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유해발굴사업을 알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유해발굴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에스원과 함께하는 유해발굴사업 홍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에스원은 지난해 MOU를 체결한 후 올해에도 유해발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에스원은 80여만 명에 이르는 고객들에게 '대한민국 영웅, 명예 찾기' 안내문을 배포하고 전국 지사 출동차량에 홍보물을 부착하여 유해발굴사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와 고객에게 발송되는 이메일 등을 활용해 국유단의 활동을 소개하며 유해발굴사업 인지도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3 에스원 유해발굴사업 출동 차량 홍보

# 아버지, 그리운 내 아버지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 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를 받고 내뺨은 유가족의 첫마디엔 흐르는 세월도 막지 못한 그리움과 사무침이 담겨있습니다. 올해 전반기, 두 명의 호국영웅이 꿈에 그리던 아들을 만났습니다. 故 김재권 일병과 故 윤경혁 일병이 그 주인공입니다.

故 김재권 일병은 아내의 뱃속에 있던 아이를 보지 못한 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참전을 결심했습니다. 그의 아들 김성택 씨는 태어나 처음 아버지를 소리 내어 불러봅니다.

故 윤경혁 일병은 2001년 북한 땅에서 발굴되어 17년 만에 1만 5천 km를 돌아 아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아들 윤팔현 씨는 먼 길을 돌아온 아버지를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을 연신 흘렸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늙름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20대 청년이지만,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두 아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故 김재권 일병은 맑은 섬 제주에 사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내 전옥순 씨와 만나 신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전쟁이 발발하자 27살의 나이에 자진 입대를 결심했습니다. 당시 작은아버지가 운영하던 목재소 부지를 군 부대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입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故 김 일병은 아내의 뱃속에 있던 아이와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전장에 나섰습니다.

故 김 일병의 아내 전옥순 씨는 유해도 없이 전사자 통지서로만 남편의 죽음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남편을 그리며 40여 년 동안 홀로 지내



1 故 윤경혁 일병

2 故 김재권 일병 (위쪽 가운데)

온 어머니.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속 아버지는 전장으로 떠나기 전까지 ‘내가 사격을 잘 하니 안심해라’라며 걱정하는 아내를 달래주던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故 윤경혁 일병도 슬하에 2남 1녀를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 오던 중 전쟁이 발발하여 자식들과 아내를 남겨둔 채 치열한 전장으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참전한 그는, 미군 1기병사단(카투사)으로 배치 받아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반격 작전을 개시했지만 중공군의 압박으로 다시 철수하는 과정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흐른 2001년, 故 윤 일병의 유해는 북·미 공동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평안남도 개천 지역에서 미군 유해에 섞여 발견 뒀습니다. 故 윤 일병의 유해는 신원 확인을

위해 미 하와이로 건너가 정밀 감식 과정을 거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운 아들의 품에 안기는데 자그마치 6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누군가의 남편인 호국의 영웅들은 번호로 남아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8명의 호국용사 분들이 가족을 찾을 수 있었던 결정적 단서는 유품과 유가족 시료채취를 통한 유전자 감식 결과입니다. 하지만 현재 유전자 시료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은 약 4만여 명으로 미수습된 유해 12만 3천여 위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공적인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든 호국용사 분들의 가족을 찾는 그날까지 저희도 쉬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3 故 윤경혁 일병 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 전달식

# 먼 타국 땅에 계신 영웅 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15년부터 6·25참전용사에 대한 증언취취를 매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국내 참전용사 분들을 대상으로 증언취취를 이어오던 중 국가보훈처와 6·25참전유공자회 중앙회를 통해 미 서부 지역에 참전용사 약 1,400여 명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령이신 참전용사 분들의 연세를 고려하여 더 늦기 전에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미 서부지역을 방문했습니다.

6박 8일 일정으로 미 서부 2개 도시(샌프란시스코, LA)를 방문하여 135명의 참전용사 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6·25전쟁 이후 약 70년이 다 되어 가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참전용사 분들이 간직하고 계시는 전투 지역에 대한 상세한 기억과 기록물(당시 작전 요도)은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미 서부지역 방문에서는 참전용사 분이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하고 계셨던 53년도 포크잡고지(지금의 DMZ 지역)전투 작전지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달받은 작전지도를 통해 DMZ 지역에 매장되어있는 아군 전사자의 희생 지역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참전용사의 소중한 자료는 향후 진행 예정인 DMZ 지역 발굴 작전에서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참전용사 분들의 나이도 점차 많아져 갑니다. 유해발굴감식단은 매년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을 쪼개

어 더 많이, 더 멀리 참전용사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바빠 달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유해소재 관련 증언취취를 포기하지 않고 실시하여, 유해발굴사업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 LA 증언취취회  
3 4 샌프란시스코 증언취취회

# 그들을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호국영웅 분들을 가족의 품으로 모시고, 대한민국 땅에 묻힌 타국의 병사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유해발굴사업 설명회 및 6·25참전용사 증언취취회



1 창원지역 사업설명회 2 증언취취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유가족 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창원에서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창원지역에 거주 중인 6·25참전용사 유가족, 보건소 및 행정기관 관계자, 예비군 지휘관 등을 모시고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유해발굴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6·25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참전용사의 증언 취취를 통해 6·25전쟁 당시 전투현장에 남겨둔 전우의 유해소재를 제보받고, 영상으로 촬영해 기록하였습니다.

## 현충일 유가족 시료 채취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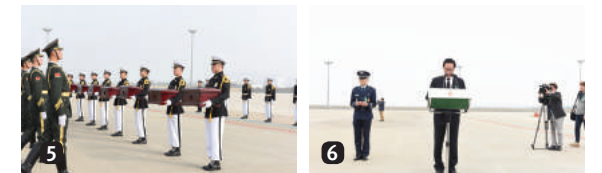


3 서울 현충원 유전자 시료 채취 4 서울 현충원 사진유품전시회

2018년 6월 6일, 제59회 현충일을 맞아 미수습된 6·25전사자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2008년부터 매년 시행된 「현충일 6·25전사자 유가족 찾기 행사」는 국립 서울현충원뿐만 아니라 대전현충원에서도 함께 진행하여 전국에 계신 모든 유가족 분들이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제5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5 중국군 유해인계 6 송영무 국방부장관 인사말씀

2014년부터 이어진 중국군 유해송환 인도식은 올해로 5회차를 맞이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4년 한국에서 해마다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를 국제 법과 인도주의 정신을 존중하여 청명절 이전에 중국 측에 송환하기로 협의한 후 매년 한차례씩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래지향적 한·중 관계 개선의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유해 송환 업무를 이관하는 중국 민정부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국방부장관이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 대한민국 영웅의 명예를 찾기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노력은 마지막 한 분을 모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국민 여러분과 유가족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유전자 시료 채취 및 유해 소재 제보 참여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10만여 명의 장병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유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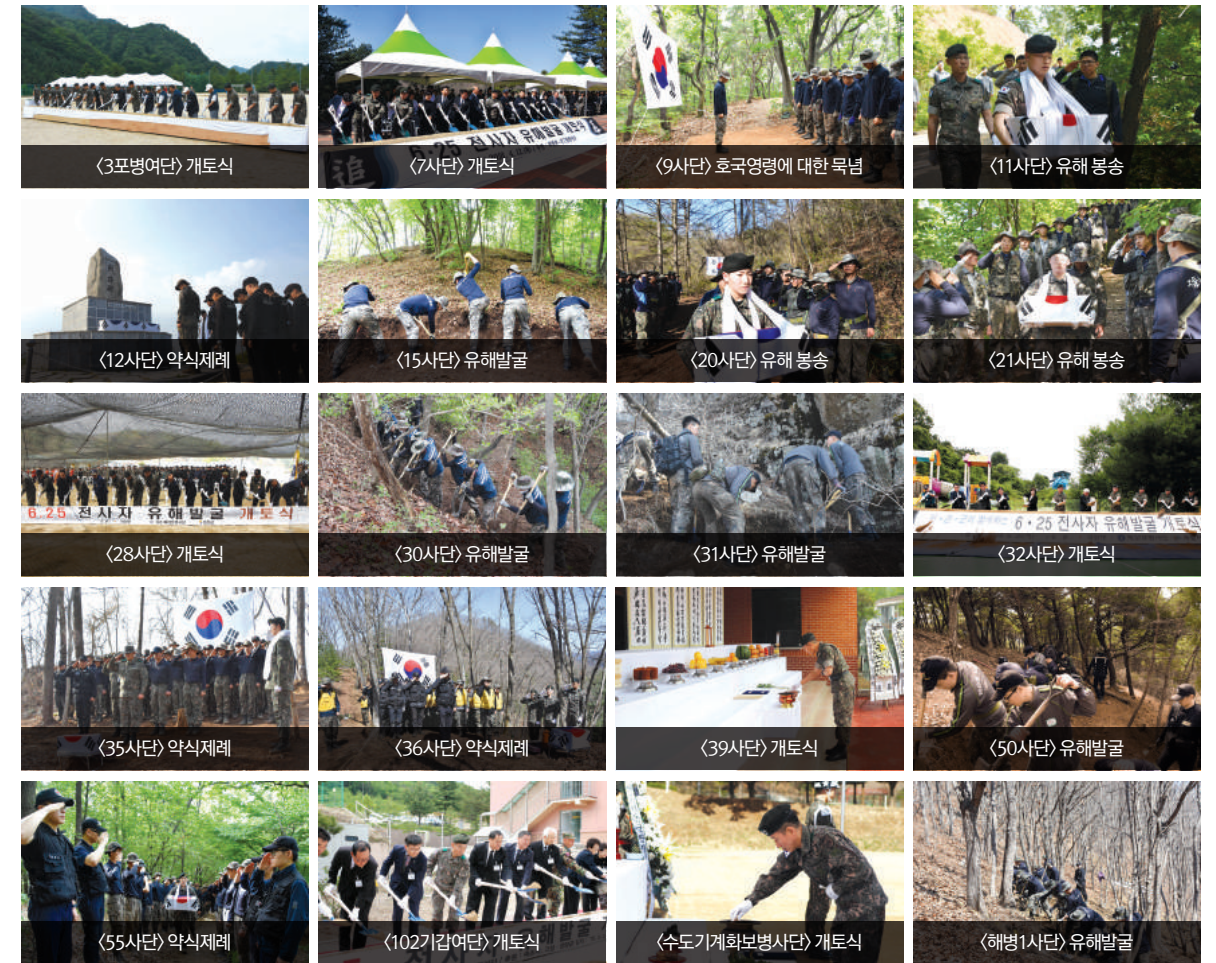
##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in Media

유해발굴감식 사업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대중 미디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알렸습니다.



## 전반기 유해발굴 성과 및 후반기 발굴계획 \*2018년 6월 30일 기준

전국 24개 사·여단의 장병들이 유해발굴에 참여하여,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서 호국영웅 분들을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올해 전반기까지 약 11,400여 위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신원이 확인된 故 김재권, 故 윤경혁 일병을 가족의 품으로 모셨습니다.



### 전투지역 발굴

9.3 - 10.5	경기 연천
9.3 - 10.12	강원 양구, 강릉 경기 수원, 가평
9.10 - 10.5	강원 고성
9.17 - 10.26	강원 인제
10.1 - 11.2	강원 화천
10.15 - 11.16	경북 칠곡
10.22 - 11.16	경북 영천
11.5 - 16	경북 영천
10.8 - 11.2	경기 연천
10.22 - 11.9	충북 영동

### 2018년 후반기 발굴 계획

### 제보지역 발굴

9.3 - 7	강원 인제
9.3 - 21	포천, 화천, 철원
10.15 - 26	양구, 인제, 영천
10.15 - 11.16	파주, 고양
10.29 - 11.16	양구, 가평
11.5 - 16	파주, 고양, 포천, 철원
11.12 - 16	청주, 영동
11.19 - 23	연천, 문경, 상주, 대구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우리는  
대한민국  
영웅의 명예를  
반드시  
찾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 호국영웅의 소재를 제보해주세요!

6·25 전쟁 당시 전사자 직접 매장, 목격 또는 들은 사실이 있다면 하루 빨리 제보해주세요!

- 제보전화: 1577-5625
- 유해 발굴시 포상금 지급 **최대 70만원**

## 쉽고 빠른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 직접방문: 가까운 보건소, 보건지소, 군병원, 예비군 동대 방문채취 (보건소, 군병원 방문 채취시 **무료 건강검진 제공**)
- 전화신청: **1577-5625** 유전자 시료채취 카드 발송(직접채취)
- 현역장병: 소속부대 인사담당자에게 신청(**문화상품권, 위로휴가 제공**)



문의전화

**1577-5625** 오! 6·25

06984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50 대표번호 1577-5625 [www.withcountry.mil.kr](http://www.withcountry.mil.kr)

디자인 (주)풍경인소풍 070-7433-1123 표지 글씨 이상현(캘리그래피 작가) 간첩·테러범·방산스파이 신고는 국군 기무사령부 ☎1337